

# 대체 불가능 토큰

장정훈

# NFT란??

- Non-fungible token으로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한다.
-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서 디지털 자산의 소유주를 증명하는 가상의 토큰
- 그림, 영상 등의 디지털 파일이나 자산에 복제 및 위조가 불가능한 암호를 증명서로 붙임으로써 그 고유한 원본성 및 소유권을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된다.

# NFT란??

- NFT는 기본적으로 가상세계가 대세가 될 것이라는 전제.
- 디지털 자산을 NFT 토큰으로 만드는 것을 화폐를 주조한다는 의미로 민팅(Minting)이라 표현

# NFT 특징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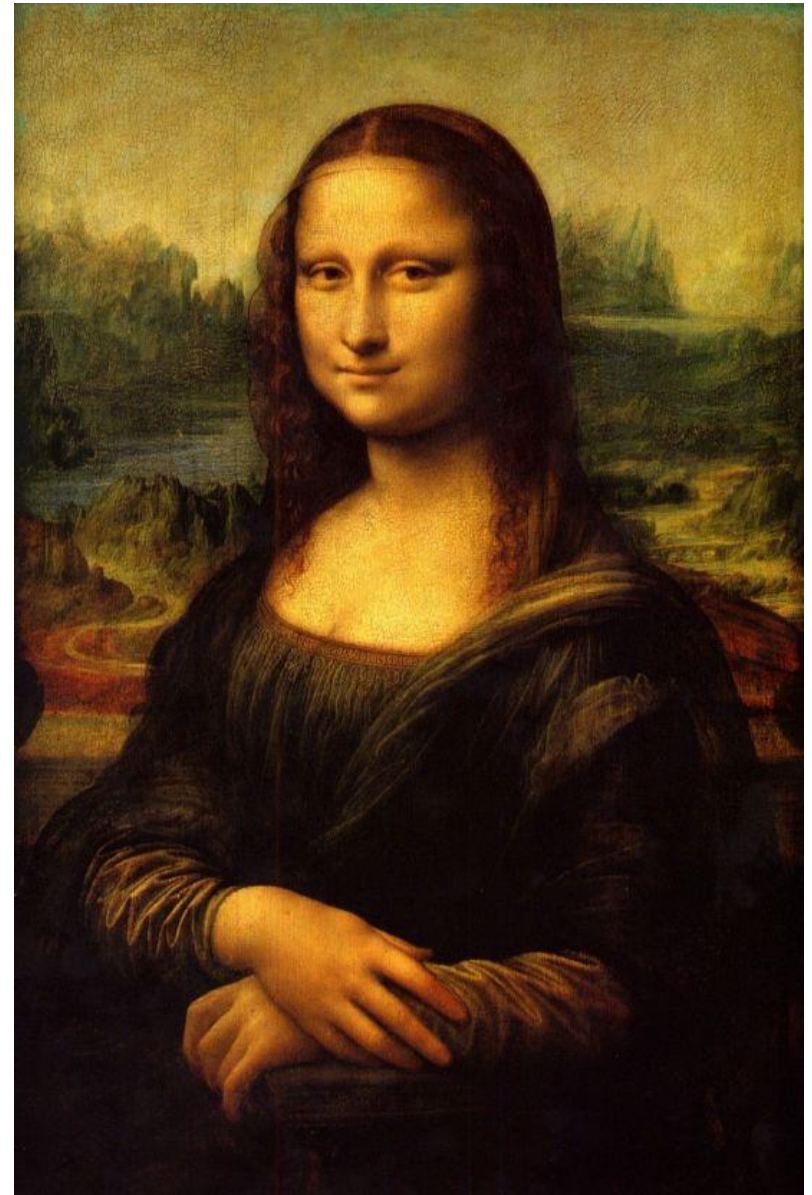
- 기존에도 DRM이라는 복제 방지 기술이 있다.
  - 싸피도 DRM이 있어서 캡처 도구를 사용하면 화면이 가려지는 것처럼
  - 이를 유통하는 중앙화된 관리 서버가 존재해서 완벽한 개인의 소유라고 하기에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.

# NFT 특징

- NFT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해 누구의 통제도 받지 않으며
- 복제 불가능한 고유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희소성을 온전히 인정받을 수 있으며, 상대적으로 훨씬 안전하다.
- 거래는 일반적으로 NFT 플랫폼에서 암호 화폐인 이더리움을 이용한 경매형식으로 이루어진다.



ABCDEFGHIJKLMN



WQIOSFOPJEQW

# NFT 인증은 어떻게 하는데?

- NFT를 생성하고 인증을 해주는 회사가 있고
- 통상적으로는 이더리움을 이용한 거래를 하기 때문에 거래 기록이 생겨 원본 소유자를 구별할 수 있다.
- 원본 제작자가 같은 작품으로 새롭게 NFT를 만든다고 해도 생성날짜가 기록되기 때문에 원본 인증이 된다.

# NFT - 장점

- **생산의 용이성**

- 인정받는 데에 오래 걸리고 진품 논란이 생김.
- NFT는 매우 간단한 컴퓨터 작업만으로도 확고한 진품 증명 토큰을 생산할 수 있다.

- **거래의 자유로움**

- 개인간에도 인터넷 전송을 통해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받지 않기 때문에 더욱 거래하기가 쉽다.

- **희소성**



# NFT - 단점

- 기술적 문제에 따른 잠재 위험
- 대중 이해도 진입장벽
- 정립되지 않은 체계와 NFT의 난립
- 도용 NFT 생성 문제
- 저작권 독점이 아닌 소유권 취득이라는 한계